

孝田 沈魯崇 悼亡文에 대한 一考

한 새 해*

<目 次>

- | | |
|--------------------------|---------------------|
| I. 서 론 | IV. 亡室의 의미와 도망문의 창작 |
| II. 祭文에 대한 인식과 지배적 정서 | V. 결 론 |
| III. 悼亡文에 나타난 '哀'의 구현 양상 | |

<국문 초록>

심노승의 悼亡文에서 나타나는 아내는, 일반적으로 祭文이 기능하는 '망자에 대한 위안' 혹은 '자기 위안'이라는 단선적 측면에서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심노승 도망문의 구현 방식 등의 특징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심노승이 그토록 많은 망실문을 통해 아내의 죽음을 애통해할 수밖에 없었는지 검토하였다.

심노승의 도망문은 공적 기능을 담당했던 상용 제문이 아닌, 감정을 내포한 일종의 사적 문학으로 변용하여 쓰였다. 심노승의 도망문은 아내를 위한 편지의 일종으로써 망자를 위한 글이나, 망자에게 중요한 기억이었을 것이라 추정되는 기록물이다. 따라서 심노승의 망실문은 죽은 아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자신과 조우되는 차원의 슬픔을 주로 기술한다. 이러한 복합적 발화 방식은 종내 심노승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극한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글쓰기와 연결된다.

심노승에게 형상화된 아내는 友道의 측면에서 이해된다. 아내는 知遇之感을

*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과정 수료 / ddch38@hanmail.net

느끼게 하는 자질을 지닌 자였다. 심노승의 아내는 기질적으로 현묘하였으면서도 정치적으로 고단했던 남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知己이자 정신적 동반자였다. 그녀를 잃은 상실감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었다. 심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노승은 그를 극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아내를 복원시키는 글쓰기를 선택하기에 이른다.

【주제어】 도망문, 지기, 슬픔, 자기 극복, 정신적 동반자

I. 서론

본 연구는 효전 심노승(1762~1837) 悼亡文 구현 양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심노승에게 아내는 어떤 의미였으며 그녀를 어떠한 측면에서 왜 기술했는가를 구명하는 작업에 이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는 도망문¹⁾은 『孝田散稿』에 나타난 죽은 아내를 애도하는 산문 형식의 글 일체를 가리킨다. 곧 祭文이나 墓文으로부터 序, 跋, 原이나 記, 雜文 등에 이르기까지의 亡室과 관련한 글을 의미한다.

심노승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²⁾ 이러한 성과 덕분인지, 고전 읽기의 열풍에 공조한 대중 서적들은 심노승

-
- 1) 도망문이란 본래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문학의 범칭이나, 西晉의 문학가 潘岳(247~300)이 죽은 아내를 애도해 지은 「悼亡詩」와 「悼亡賦」 등 이래로 주로 아내를 대상으로 한 문학들을 가리킨다.
 - 2) 김수진, 『『恩坡散稿』의 성립과 沈魯崇』, 『한국문화』 7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김영진, 「孝田 沈魯崇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김영진, 「유배인 심노승의 孤獨과 文筆로써의 消愁 -유배일기 『南遷日錄』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7, 근역한문학회, 2013; 안대회, 「18, 19세기의 음식취향과 미각에 관한 기록 -沈魯崇의 『孝田散稿』와 『南遷日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5; 안득용, 「자서전 코드로 읽어 본 自撰 年譜 -沈魯崇의 『自著紀年』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문학회, 2015; 유정열, 「형제 관계 속에서 본 沈魯崇의 문학 활동 -청년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9,

을 조선의 재야형 인물로 소개하며 죽은 아내를 위해 절절한 감정을 서술한 로맨티스트 등으로 기술한다.³⁾ 당대에 주로 상용화된 문체로 공적 기능을 담당했던 제문이 감정을 내포한 일종의 사적 문학으로 변용하여 쓰였다는 지점은 심노송을 다소 특별해 보일 수 있게 한다. 그렇다고 심노송만이 아내에 대한 情恨을 애절하게 토로한 것은 아니며, 비슷한 맥락에서 쓰인 여타 사대부 문사들의 도망시·문도 왕왕 찾아낼 수 있다.⁴⁾ 다만 그 서정적 기술에 있어 작가들마다 작법 등의 차이점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주지할 것은 기준에 심노송에 대한 학계의 언급이나 소개가 그 망실문의 특이성을 주목하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연구는 김영진(1996)의 논문에서 祭文類가 아닌 문체 곧 記 原 등의 문체에서 일부 제시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박무영(2003)의 논문에서 非祭文的 글쓰기의 사례로써 부분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⁵⁾ 더욱이 심노송의 도망시·문을 두고 “무려 26제의 詩와 23편의 文을 남겨 아내를 애도하였으니 우리 문학사에 유래가 없다.”⁶⁾라는 언술에도,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민족문화사학회, 2015; 정우봉, 「沈魯崇의 『南遷日錄』에 나타난 내면고백과 소통의 글쓰기」, 『한국한문학회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정우봉, 「沈魯崇의 自傳文學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과 자아 형상」, 『민족문화연구』 6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한새해, 「『효전산고』에 나타난 여성 형상화 방식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3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 3) 노대환, 『소신에 목숨을 건 조선의 아웃사이더』, 역사의 아침, 2007; 이수광,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연애사건: 시대와 신분을 뛰어넘은 조선의 최대의 스캔들』, 다산초당, 2007; 정창권,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푸른역사, 2015.
- 4) 김미영, 「죽은 아내를 위한 선비의 제문 연구」, 『실천민속학』 8, 실천민속학회, 2006; 이은영, 「못 다 한 사랑과 그리움의 노래 -悼亡詩의 전통과 미」,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황수연, 「조선후기 제문 연구 -여성 대상 제문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26, 대동한문학회, 2006.
- 5) 김영진(1996), 같은 논문, pp.54-63; 박무영, 「18세기 제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회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pp.333-336.
- 6) 김영진,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p.17. 심노송의 시세계를 悼亡詩의 관점에서 고찰한 김영진의 「孝田 沈魯崇論」(『조선후기 한시작가론』 2, 이회, 1998, pp.310-316)을 참고할 만하다.

물론 문예적·문학적 가치를 수반하지 않는 도망시·문에 대해, 量的 기술이라는 단순한 척도에 기반한 연구는 유의미한 작업이 되기 어렵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양적으로 많이 기술된 그 도망문에서는 심노승이 어떠한 기저에서 그토록 아내를 형상화하고 구현해내려 했는가의 의문을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심노승과 관련한 잇따른 연구 성과나 출판물의 간행은 그의 시·문 등에 문학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⁷⁾

심노승의 도망문에서 나타나는 아내는, 통상 제문이 기능하는 ‘망자에 대한 위안’ 혹은 ‘자기 위안’이라는 측면에서 단선적으로 정리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심노승 도망문의 지배적인 성격과 특징 등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심노승에게 죽은 아내는 어떤 존재였기에 『眉眼記』와 『枕上集』⁸⁾ 등의 수많은 망실문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지 검토하는 작업에 이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심노승의 도망문은 죽은 아내를 소재로 삼고 그 슬픔을 에워싼 폭넓은 주제라는 측면에서 祭文, 記, 序跋, 傳, 雜文 등을 포함하는 산문 일체를 가리킨다.

II. 祭文에 대한 인식과 지배적 정서

망자를 애도하는 대표적 산문체 글로는 墓誌銘과 行狀, 祭文 등이 있다.

-
- 7) 『효전산고』(2014)의 영인본이 출간되었으며, 김영진(2001), 안대희외(2014), 차미희 외(2013)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 8) 심노승과 동갑내기였던 아내 전주이씨는 1792년 사망하고, 심노승은 이로부터 약 2년간 망실과 관련한 작품에 몰두하게 되는데 주로 『효전산고』 6책에 실려 있다. 『효전산고』는 창작연대순으로 遍在하였기에 『침상기』, 『미안기』 등의 小集은 모두 해체되어 실려 있으며, 해당 목차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枕上集序」, 「喪葬記序」, 「喪葬記」, 「亡室言行記鈔」, 「言行記」, 「眉眼記序」, 「望奠祭亡室文」, 「發柩前告亡室文」, 「朝夕祭亡室墓文」, 「上親庭書」, 「西行告亡室文」, 「在西郡正朝替奠告亡室文」, 「書告祭文後」, 「新山種樹記」, 「淚原」, 「亡室大祥前一日告文」, 「生辰告亡室墓文」, 「端午告亡室墓文」, 「亡室初忌日薦佛疏」, 「亡室墓誌」, 「大菴寺觀音供飯記」, 「偕隱屏跋」, 「亡室實記序」

墓誌銘은 망자의 칭송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서술방식을 취하는 편이고, 行狀 역시 죽음 자체에 대한 언급이나 작가의 내면적 감정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기술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⁹⁾ 祭文은 작가의 개성에 따라 서정적/사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고 의례적인/공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제문의 공적 기능이라는 측면 곧 제망실문이 가문의식과 연계하여 가정 내 규훈서 등의 현실적 기능을 담당했다는 측면의 연구로 박무영(2003)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한다면, 본고는 다소 범박한 의미에서 서정적/사적 측면에서 심노송의 도망문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심노송은 망자를 전범화하는 일반적인 제문으로써의 형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글을 살펴보자.

(가) 나는 제문은 歌頌·誌狀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세상에선 많이 行錄을 써 고하니 그 슬픔이 신을 감동시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는 비유하자면 먼 길 떠난 이에게 편지를 부치면서 그 혼자 떨어져 있는 쓸쓸함을 말하지 않고 그 나그네 된 고충을 위로하지 않은 채, 평일 언행의 착함과 재덕의 높음만을 장황히 말하면서 ‘이와 같은 까닭에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꼴과 같으니 그 사람이 어찌 발끈 노하여 ‘이는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이렇지 않다면 과연 나를 잊을 것인가?’라 하지 않겠는가?¹⁰⁾ *밀줄은 필자

(나) 밤에 누워 대강 문장을 엮다가 닭이 울고 나서야 그치니, 문득 지난 해 내가 서군 작은 집에 머무르며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던 때와 같아서, 마치 당신이 답장을 할 것 같아 나 또한 우투거니 기다리게 되니 내 마음 또한 슬프오.¹¹⁾

9) 김미영(2006), 같은 논문, p.286.

10) 沈魯崇, 「書告祭文後」(『孝田散稿』 6책), “余嘗以爲祭文異於歌頌誌狀, 而世俗多作爲行錄而告之, 未見其哀動感神. 比如寄書於遠征之人, 未嘗道其離索之戀, 勞其行旅之苦, 乃忍張皇說其平日言之善·才德之高而曰, ‘能如是, 故不能忘也.’ 其人豈不勃然怒曰, ‘是慢我也. 不如是, 果相忘乎?’”

11) 沈魯崇, 「秋夕祭亡室墓門」(『孝田散稿』 6책), “夜臥草文, 鷄鳴而止, 忽若前年吾在西郡子舍, 寄子書時事, 若可以子將有答, 吾且佇依. 吾之心亦憾矣.”

심노승은 제문에 대한 형식을 비판한다. (가)에서는 당대 상용되던 제문이 고인의 업적이나 언행과 재덕의 선함만을 칭송한다고 설명한다. 살았을 때는 조명 받지 못하다가 죽어서 비로소 그 덕을 예찬하니, 죽은 자들이 모두 생전에 그와 같았다면 만고에 성인군자가 넘쳐났었던 것인가? 이는 형식적이고 상투적인 제문의 형식에서 고인을 반추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나는 제문은 가송·행장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余嘗以爲祭文異於歌頌誌狀]”는 구절로 보아, 제문을 통상 공적인 관점의 글과는 다른 서정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글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나)에 의하면 제문은 망자에게 바치는 일종의 편지이다. (가)에서도 비록 비유의 의미에서 설명되기는 하였지만, 제문을 고인을 위한 편지로 묘사한다. 수신자가 명백한 글에서 정작 홀로 떠나는 망자의 외로움이나 슬픔은 헤아리지 못한 채, 의례적인 행적 묘사에만 집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그렇기에 편지를 받을 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발신자가 이야기한) 선행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과연 자신을 잊을 것이었나?’라 하며 진노할 것이라는 것이다.

박무영에 따르면, 심노승의 이와 같은 태도는 제문의 공적인 부분을 부정하고 사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18세기 사적 제문을 중심으로 제망실문이 문예문화하는 경향을 이론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설명한다. 필자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심노승은 제문이라는 장르에 대한 확고한 持論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오로지 망자의 슬픔을 위로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다른 글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다) 내가 글을 써서 그대에게 고한 것이 여러 차례인데, 보태지 않고 스스로 회한만을 얘기하고, 참지 못하고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였으나 그대의 덕행과 언행은 한 자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가송이나 묘지, 행장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서라오. 다만 슬픔만을 쓴 것은 내 생각이 그대에게 있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오.¹²⁾ *밑줄은 필자

12) 沈魯崇, 「亡室大祥前一日告文」(『孝田散稿』 6책), “吾之爲文告子屢矣, 無補而自道悔恨,

아내가 죽은 지 1년이 되기 전날 쓴 이 글에서 심노송은, 상용 제문으로 사용되던 歌頌誌狀의 형태를 거부한 채 아내를 위해 수차례 써왔던 편지들 혹은 망실문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다. 심노송이 기존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오로지 ‘슬픔’만을 기록한 것은, 아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발신자인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只叙哀衷, 重吾思之在子.]이라는 취지다. (가)의 예문에서 역시 “(제문이) 그 슬픔이 신을 감동시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未見其哀動感神.]”고 말한 바, 심노송은 기존의 제문 등이 ‘哀’의 정서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 삼고 있다. 심노송의 도망문을 성격을 살피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哀’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슬픔이란 인간이 즉자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감정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사대부가 이른바 ‘喜怒哀樂愛惡慾’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심노송은 오히려 그 슬픔의 정서가 제문에서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眞情’을 담는 것이 문학의 正度라고 생각한 심노송 문학관은 『효전산고』¹³⁾내에서 두루 찾을 수 있는데, 그의 문학적 특징 혹은 경향의 일단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심노송은 슬픔의 정서가 우선시되어야만 하는 망실문에서 그러한 감정을 배제한 기존의 방식은 결코 적합한 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의 도망문에서 슬픔을 구현해내는 방식은 다시 두 가지 차원에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1. 神[亡人]을 위한 慰撫
2. (망인에 의해 슬픈) 自己 慰安

망자에 대한 위무 곧 죽은 자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런

不忍而爲說, 經闕, 子之德性言行, 一言不及, 謂異於歌頌誌狀, 只叙哀衷, 重吾思之在子.”

13) 김영진, 『『孝田散稿』 解題』(沈魯崇, 『孝田散稿』, 학자원, 2014, p.18) 참조.

망자에 의해 슬픈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두 번째이다. 앞서 필자는 (가)와 (다)의 예문 ‘未見其哀動感神’와 ‘只叙哀衷, 重吾思之在子.’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심노승에 의하면, 제문은 아내에게 수신된 일종의 편지이기 때문에 오로지 망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이 의미를 재고해 보면, 이미 ‘古人’이 된 이에게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거나 어쩌면 받을 수 없는) 편지를 부친다는 것은 결국 제문을 쓰는 주체의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글쓰기란 어떤 형태나 형식이든지 간에 필자의 생각과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제문의 의미가 죽은 자를 위로하는 것인지, 산 자들을 위한 것인지, 혹은 쓰는 주체의 자기 위안이거나 그 모두나 일부를 포함한 것인지 등은 쓰기의 주체가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노승의 망실문에 지배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哀’의 정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제문쓰기의 주체는 오로지 죽은 자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슬픔은 결국 쓰기의 주체자의 생각과 遭遇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수신자인 망자의 슬픔은 곧 발신자의 입장에서 가정되거나 想定된 망자의 슬픔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심노승의 도망문에서는 왕왕 망자의 슬픔이 심노승의 회한으로 置換되어 기술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 하나 이해되어야 할 ‘哀’의 측면은 망자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위안의 글쓰기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III. 悼亡文에 나타난 ‘哀’의 구현 방식

제문을 상투화된 글쓰기가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의 글쓰기, 특히 슬픔의 정서를 지배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파악한 심노승은 주로 아내와 관련한 逸話중심으로 서술한다. 망자에 대한 기록은 심노승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기억이다. 때문에 이것은 망자가 기억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사실 관계와 상관 없이 심노승에 의해 왜곡되거나 굴절된 기억일 수 있다. 서술자인 심노승에

의해 구현된 아내의 생각이고 기억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망자를 위로하는 차원’ 곧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쓰인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서술자인 심노숭에 의한 것이다. 그리하여 아내를 위한, 아내가 슬퍼할 만한 기억이라는 것은 심노숭이 추정하기에 아내가 가장 중요하거나 애통하다고 생각했었을 기억이며, 그러한 기억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직관적이다.

(가) 파주 집에 가려 했던 오래된 계획을 그대도 혹시 기억하오? 사당을 봉안하고 어머니를 모셔 놓았었소 나는 머물러 있다가 관을 따라 그대와 함께 돌아왔소 새벽 베개머리에 온갖 근심이 일어나고 낙숫물 소리 들리는데 등불도 없소 평생을 참회하니 문득 깨달음을 얻은 승려와 같소 죽음은 참으로 슬픈 것이나 살았다고 어찌 즐겁겠소? 한편의 아득한 꿈 같으니 그대 먼저 먼 곳을 바라보시오.¹⁴⁾

(나) 지난해 고향 파주에 조그만 집을 새로 지을 적에 아내가 기뻐하며 말하길, “이제 당신 뜻을 이룬 건가요?”라 하였다. 정원과 담장을 배열하고 창문과 기둥의 위치를 잡는 것을 아내와 상의하였다. 공정이 끝나기를 기다려 꽃과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일이 끝나기 전에 아내는 병들과 말았다. 나는 아내의 병이 조금 차도가 있으면 바로 파주로 와서 일을 도왔다. 일이 끝날 무렵 아내는 병이 위독해져 거의 죽게 되었다. 내게 말하기를, “파주 집 곁에 저를 묻어주세요.”라고 하니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렸다. 집이 파주로 이사 오던 날 아내는棺에 실린 채 왔다 아내의 무덤 자리를 정하였는데 집에서 백 보도 되지 않은 곳이었다. …(중략)… 아. 그것은 참으로 오래된 계획이었다. 남원을 버리고 파주로 가겠다고 그 계획을 이제야 이루었는데 아내와 하루도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뒤에 죽는 것이 다만 슬픔만을 더한즉 사람이 구구히 삶을 도모하여 스스로 오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또한 미혹된 것이 아닌가!¹⁵⁾

14) 沈魯崇, 「望奠祭亡室文」(『孝田散稿』 6책), “坡廬久計, 子或尙記. 旣安祠廟, 繼奉慈闈. 我留隨櫬, 與子同歸. 百憂最枕, 聽露無燈. 平生懺悔, 忽如悟僧. 死固可悲, 生亦何歡? 悠悠一夢, 子先澁觀.”

15) 沈魯崇, 「新山種樹記」(『孝田散稿』 6책), “前年新構坡山小廬. 君喜曰, ‘此其成子志耶?’ 排列園牆, 位置窓櫺, 實與君議之, 待工訖, 種花樹, 工未而君已病矣. 余猶視君病間, 輒來相役, 幾垂成, 病劇且死, 謂余曰, ‘坡山之廬, 將葬其傍耶?’ 相對泣下. 一室始歸廬, 君以椁來, 卜阡得廬傍無百步. …(중략)… 嗚呼! 此眞久計也. 向余之捨南園而

아내의 喪中, 음력 보름날 지내는 제사에서 쓰인 (가)에서 심노승은 ‘坡廬久計’를 언급한다. 그리고 記의 형식으로 쓰인 (나)에서 아내와 함께 落鄉, 安貧樂道하며 ‘파주에 살고자 했던 그 오래된 계획’을 설명한다. (나)에서 심노승은 파주 선산에 나무를 심게 된 내력을 아내와의 지난 추억에 기대어 서술한다. 생전 아내는 꽃나무를 가꾸기를 소망하였고, 심노승은 파주로 근거지를 옮겨 그 소원을 현실화시키고자 했다. 심노승은 정원과 담장, 창문과 기둥의 위치 등을 아내와 일일이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꽃나무도 함께 심고자 하였다. 그러나 끝내 그곳에서 하루도 함께하지 못하고 아내는 목숨을 다하였다. 아내도 이를 애통해하며, 죽기 전 파주 집 곁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이처럼 심노승은 전형화되고 있는 애도문 형식에서 벗어나⁶⁾ 강렬했던 아내와의 기억을 중심으로 슬픔을 형상화한다. (가)에서는 아내에게 수신되는 편지 형식으로 (나)에서는 생전 아내의 육성을 중간에 삽입하여, 현장감을 높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 각기 다른 두 예문에서 ‘파주’라는 공간을 중첩하여 기술하는데 이는 아내와 심노승이 함께 소원했던 낙향의 꿈을 거듭 강조하는 매개가 된다. 그러나 파주에서 함께하고자 했던 꿈은 결국 아내가 스스로 무덤 자리를 지목하고 그곳에서 죽어서야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슬픔이 극대화된다. 파주의 이야기는 아내가 ‘痛恨’하고 있을 기억을 중심으로 서술된 것이다. 그것은 또 심노승 자신과 照應되는 중요한 일화이다. 왜냐하면 (나)에서 아내가 심노승에게 파주의 집을 마련한 것에 대해 ‘此其成子志耶[이제 그대의 뜻을 이룬 것인가요]’라고 하는 구절에서 설명되기 때문이다. 파주에 낙향하여 살고자 한 것은 아내뿐 아니라 심노승 또한 오랫동안 소망하던 것이기에 그러하

就坡山, 成言爲計者, 既不得與君一日居, 後死而只益其悲, 則人之區區謀生, 自以爲久計者, 其亦惑矣.”

- 16) 틀에 얽매이지 않는 심노승의 글쓰기 방식은 여타의 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우봉의 「조선후기 游記의 글쓰기 및 향유 방식의 변화」(『한국한문학연구』 49, 한문한문학회, 2012, pp.117-118.)에 의하면, 심노승은 기존의 산수유기가 지닌 천편일률성을 비판하면서, 자기 나름의 기준에 의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론을 펼치고자 했다.

다. 이처럼 심노승의 도망문에서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중복되거나 공통적으로 중요했던 ‘기억’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내가 여기까지 생각하니 갑자기 죽고 싶고 또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소. 나는 비록 악행의 결과를 받아도 부족하지만 그대는 선행의 보답을 받고도 남고, 그대는 비록 죽어도 후사가 있으면 나의 악행을 갚고, 그대의 선행은 보답 받아야 할 텐데 곧 분별하여 비교하지도 못하고, 끝내 그대로 하여금 죽어 후사가 없게 했으니, 속세의 관리들이 정사를 다스림에 모호하게 분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가? 또다시 생각하니 이는 또한 그대의 선함이 나의 선하지 못함을 이기지 못한 것이오 나는 끝내 하늘을 원망할 수 없고 끝까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소. 나의 슬픔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대는 지금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하니 짝을 잃은 것이 비록 슬프지만, 새로운 배우자가 있으면 잊을 것이고, 후사가 없는 것은 걱정거리가 아니며 어찌 많지 않음을 알리오?”라고 했으니, 이 말은 진실로 그럴 듯하지만, 만약 내가 채취해서 비록 그대처럼 어질다 해도 그는 이미 그대가 아니니 내가 어찌 슬프지 않겠소? 그대에게 후사가 없는데 내게 어찌 있겠소? 비록 있다고 해도 그대의 아들이 아니니 그대는 비록 아들이 없다고 하나 아들이 있는 것이고, 나는 비록 아들이 있다고 하나 아들이 없는 것이오.¹⁷⁾

아내를 애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이 도망문의 서사에서 갑자기 죽은 아들이 등장한다. 이 기록으로 볼 때 심노승과 죽은 아내 사이에 아들이 있었으며, 아내 생전에 그 아들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심노승과 죽은 아내 완산이씨 사이에서는 1남 3녀가 있었지만, 아들과 딸 둘은 일찍 죽고 딸 하나만 남게 된다.¹⁸⁾ 심노승이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내를 잃게

17) 沈魯崇, 「亡室大祥前一日告文」(『孝田散稿』 6책), “吾念至此, 忽欲無身, 然而又有不得不怨天者. 吾雖受惡果而不足, 子可受善報而有餘, 子雖死而有嗣, 可以償吾惡而報子善, 乃不辨別參較, 終使子死而無嗣, 何其如俗官之聽理, 既然不知分數耶? 既又思之, 則此亦子之善, 不得勝吾之不善. 吾知其天終不可怨, 而吾終不可自貸也. 人有慰吾悲者, 子今父母俱慶, 兄弟無故, 失偶雖悲, 有偶可忘, 無嗣非慮, 安知不多? 此言固似, 而使吾再娶, 雖賢如子, 彼既非子, 吾豈不悲? 子而無嗣, 吾何有之? 雖有而非子之子, 則子雖曰無子而有子, 吾則曰有子而無子.”

한 것이고 이윽고 그런 아내로 하여금 후사가 없게 한 까닭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두고 어떤 이가 심노송의 喪妻와 대를 이을 後嗣가 없는 것을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지금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하니 짝을 잃은 것이 비록 슬프지만, 새로운 배우자가 있으면 잊게 될 것이고, 후사는 뒤에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심노송은 설령 자신이 아내처럼 어진 여성과 再娶하고 또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녀는 결코 죽은 아내가 아니며 그의 후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마치 아들이 없는 것과 같다고 통탄한다. 더욱이 심노송의 아내가 생전에 얼마나 아들을 소원하였는가 이해를 돕는 자료가 있다.

노파는 아내가 오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늘 한하여 빈번히, “제가 부처님께 공양할 때 우리 아씨 아들 하나 점지해 달라고 우선 염송한답니다.”라 하였다. 현의 이웃 군에 玉璫이 있었는데 아내에게 권해 비녀와 가락지를 팔아 옥을 사게 하고는 그것을 쪼아 등을 만드니 北斗 같은 것이 세 개였다. 하나는 현의 절에 시주하고 하나는 평양 永明寺에 시주하였다. 나머지 하나는 상자에 넣어 두었다가 서울로 돌아와서 노파가 있던 절에다 시주했다. 부처 앞에 등을 바칠 때 나는 銘을 지어 손수 새겨 넣었다. 이윽고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어 노파가 1년간을 보살폈으나 끝내 다 키우지 못하고 말았다. 노파가 통곡하고 울며 말하기를 “진실로 托生의 이치가 있다면 나는 오늘 죽어 내일 우리 아씨의 아들이 되려요.”라 하였다.¹⁹⁾

18) 沈魯崇, 『附祭孀女文』(『孝田散稿』 6책), “余與汝母親, 四舉三殤, 汝最長而殤. 附祭孀女文, 附祭孀女文.”

19) 위의 「朴媪傳」은 심노송의 집을 왕래하며 모친 및 아내와 각별하게 연분을 맺은 불교신자 박노파를 위해 지어진 것이다. ‘傳’이라는 측면 그리고 주로 불교신자 박씨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심노송의 도망문을 검토하는 자료로써 다소 무리한 접근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새해(2015)에 의하면, 이 글은 박노파를 기린 글이지만 작품에서 노파의 실체를 구현하기 위해 아내와의 일화가 상당 부분 할애하여 묘사되고 있으며, 그것은 마치 아내를 위해 쓴 글과 같다는 측면에서 배경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김영진(1996)도 이를 언급한다. 오히려 ‘전’의 장르를 차용하여 아내의 이야기를 서술하였다는 점, 슬픔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장르적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심노송 글쓰기의 특징이 아닐까 한다. 沈魯崇, 「朴媪傳」(『孝田散稿』 7책), “媪嘗恨孀人晚而未舉, 輒言, 吾拜佛, 先念吾姐舉男. 縣之隣郡有玉璫, 勸孀人出

위의 자료에 따르면, 박노파는 생전에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을 대신 한하며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佛心으로 돕는다. 그 과정에서 심노송도 손수 銘을 새겨 부처 앞에 바치는 등 誠心을 다한다. 아내가 얼마만큼 아들을 祈願하였는가를 구구히 설명하지 않아도 박노파의 행적을 통해 입증된다. 그렇기에 아내는 무려 세 개의 절에 玉을 시주하면서까지 부처에게 아들을 기원한 것이다. 하지만 어렵게 낳은 아들은 생후 1년여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 아내가 얼마나 그를 한하였을지는 짐작할 만하나, 심노송은 박노파의 통곡으로 그 슬픔을 대신 표현해낸다.

심노송과 아내 사이의 아들의 존재는 강렬한 혈연의 끈과 관계 깊다. 남성 계보의 가업 잇기가 중시되는 혈통중심의 조선에서 아들의 존재는 실로 큰 것이다. 장자를 爲始로 한 가문의 정통성 유지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名分에 다름없었다. 아내가 아들을 열망한 것도 이에 상응하는 것이며, 심노송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장자였던 심노송이 단순히 後嗣만을 걱정하였다면, 가문 내에서 養子를 찾았을 수도 있고 혹은 후처를 들어서 그 명맥을 잇고자 할 수 있다. 또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재가 후 후사를 이으면 그뿐이다. 그러나 심노송은 죽은 아내로부터의 아들이 아남에 悲嘆한다. 심노송이 여타의 도망문에서 거듭 죽은 아들을 거론한 것도 아내가 생전에 가장 ‘恨’하였을 傷處에 기인하는 것이다.²⁰⁾

하지만 아내를 애도하는 글에서 굳이 죽은 長子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아내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황천길로 떠나는 아내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모된 자로서 자신보다 먼저 죽어버린 자식에 대한 슬픔이 비단 아들 만에 한하겠는가? 먼저 잃은 딸은 어찌할 것인가? 따라서 아내의

簪環買玉, 磨爲燈數, 像北斗者三. 一施縣寺, 一施涇城之永明寺, 一藏篋, 東還, 施媪所居水落山寺. 供火佛前, 余爲銘, 手書而刻. 孺人既舉男, 媪保養一年, 不卒育. 大慟之, 泣曰, 誠有托生之理, 吾願今日死, 明日爲吾姪子.”

20) 심노송의 도망문에서 딸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들에 있어서는 그 서사의 강도나 문면화된 언급이 보다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 28)의 예문도 참고될 수 있다.

죽음을 두고 이들의 죽음을 거론한 것은 양면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아내의 슬픔 그 자체에 기저를 두면서도 심노승 자신의 안타까움이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심노승의 도망문에서는 아내의 슬픔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쓰여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아내를 잃은 자신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쓴 면이 강하다. 곧 아내의 슬픔이 자기의 슬픔으로 환원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심노승의 도망문에서 이러한 구분은 移項對立的으로 구축되지 않거나 구축될 수 없는 경계에 있다.

그러나 그대가 두터운 흙 속에 빠져 살을 맡기고, 마른 나무에 정신과 혼백을 깃들여 부모님께 슬픔을 드리고 사랑하는 친지들의 사랑을 끊는 것을 보니 다만 적적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통스럽게 여길 것 같소! 이것이 내 마음속에 쌓여 마치 실이 뭉쳐 있는 것 같았는데 펼쳐 말을 하니 실이 풀리는 것 같소. 귀신은 오히려 고요해서 어지러운 말이 이르기 어려울 것을 생각지 않고 분명 그대가 알 것이라 생각하오!)

아내가 죽어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니 일차적인 슬픔은 죽은 자에게 있다 [視子之委骨肉於厚土……不啻間然乃自謂苦乎]. 그러한 아내의 고통을 언급하며 이어지는 후술로 심노승은 “이것이 내 마음속에 쌓여 마치 실이 뭉쳐 있는 것 같았는데 펼쳐 말을 하니 실이 풀리는 것 같소[此吾之貯之在心, 如絲之結, 發之爲言, 如繩之解.]”라 하며, 이 글을 짓게 된 동기를 간략히 언급한다.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대리 발화한 심노승은 그 슬픔을 동일시한 선상에서 다시금 자기의 언어로 이 제문이 지향하는 기능과 목적을 발현해낸다. 그러므로 심노승의 도망문은 망자를 위한 자기 서사의 글이자 동시에 자기 위안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망자에 대한 위로는 떠나보내는 자의 기억이다.

한편 앞 장의 도망문이 주로 아내와 심노승과 공통적으로 遭遇되는 강렬하

21) 沈魯崇, 「亡室大祥前一日告文」(『孝田散稿』 6책), “然而視子之委骨肉於厚土, 寓神鬼於枯木, 貽憾於父母, 斷恩於親愛, 不啻間然, 乃自謂苦乎! 此吾之貯之在心, 如絲之結, 發之爲言, 如繩之解. 不念神道之向靜, 蔓辭之難格, 而斷謂子有之.”

고 유의미한 기억에서 서술되었다면, 이 장에서의 망실문은 온전히 아내의 입장에 立脚한 기록이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심노승 ‘자신’으로 규정 한 것은 자기 위안의 글쓰기와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가) 사람들은 말하기를 삶과 죽음에는 다 정해진 命이 있다고 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어떤 이는 혹 橫死하기도 하니 어찌 다만 어려움과 절벽·함정 등으로 죽겠소? 그대 죽음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불교에 冤業이란 말이 있으니 곧 因果요. 그대는 극락에 가고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네.²²⁾

(나) 내가 들으니 천도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서롭지 못한 것을 내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내 어찌 없는 말을 하겠소? 나는 그대가 반드시 원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소. 하늘을 원망할 수 없으니 모두 내가 악을 행하고 선하지 못해서 하늘이 재앙을 내리고자 그 방법을 끝까지 구하다가 그대로 하여금 죽게 한 것이오 이것이 그대가 나로 말미암아 죽은 까닭이오.²³⁾

(다) 떠나는 길을 배웅하고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고, 약속을 해 놓고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소. 전생에서 비롯된 연고라 해도 슬픈 생각이 드리우지 않을 수 없고, 나의 허물을 따져보니 당신의 죽음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니 어떤 것은 옛날에 깨닫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크게 깨닫게 되오.²⁴⁾ *밀줄은 필자

조선의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겪는 수고로움이나 어려움은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본다. 그런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심노승은 고인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가)·(나)·(다)는 각기 다른 망실문에 수록된 글이다. (가)에서 인간의 天命을 누리지 못하고 橫死하는 경우가 있는데

-
- 22) 沈魯崇, 「望奠祭亡室文」(『孝田散稿』 6책), “人言死生, 皆有正命, 我謂不然. 死或羅橫, 豈但桎梏, 與夫巖穿? 子死何故? 其實由我, 佛云冤業, 卽有因果, 樂國子性, 惡塗我墮.”
- 23) 沈魯崇, 「亡室大祥前一日告文」(『孝田散稿』 6책), “吾聞天道未嘗絳不祥於作善, 則吾何誣乎? 吾知子不必怨. 天不可怨, 而皆吾之作惡不善, 天欲絳殃而求極其術, 使子而死, 此所以子死之由我.”
- 24) 沈魯崇, 「秋夕祭亡室墓門文」(『孝田散稿』 6책), “若送行而待歸, 如設約而負期. 倘有宿世之緣, 能無憾念之府垂, 數吾愆尤, 明是子死之由我, 則或者昔所不省, 今乃大覺.”

아내가 바로 그에 해당한다. 횡사란 남편 때문이며 冤業에 의해 일어난 재앙이다. (나)에서는 하늘이 악행을 행한 남편의 죄를 대신 벌하여 아내를 죽인 것이고 (다)는 前生の業報로 인한 남편의 原罪로 아내가 죽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아내 죽음의 원인을 남편으로부터의 ‘冤業’ ‘善惡의 因果’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들은 불교적 색채가 농후하다. 이른바 儒家에서도 ‘선악의 응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도망문에서는 아내의 죽음을 유독 윤회적·불교적 관점[佛云冤業·樂國·惡塗·宿世之緣]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앞서 「박온전」을 통해서도 언급했다시피, 심노송의 아내는 생전에 불교에 감화된 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²⁵⁾ 아내는 불교에 의지하여 아들을 祝願했고, 자신이 죽을 때에도 불교신자 박노파에게 직접 喪事를 맡아 달라고 할 정도로 佛心이 깊었다. 심노송의 사상 저변에 불교가 어느 정도까지 자리잡고 있었는가는 후속 연구들에 의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²⁶⁾이지만, 기왕의 도망문을 통해서 아내가 죽은 원인을 심노송 자신으로 몰아간 이유는 다소 분명해진다. 심노송은 불신자였던 아내의 입장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평소 선행을 일삼았던 아내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非命橫死한 이유는 결국 因果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고 그것은 심노송 자신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심노송은 이 書信祭文을 읽게 될 수신자의 입장에서 죽음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며, 아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맥락과 배경에서 그

25) 평소 불교에 심취했던 아내의 일화를 짚막하게 소개한다. 沈魯崇, 「朴媪傳」(『孝田散稿』 7책), “아내는 불교를 아주 좋아하여 노파가 더욱 득의하여 말하기를 ‘... (중략)... 이제 아씨께서 이와 같이 불도를 좋아하시니 이는 연분이라 어찌 인력으로 미칠 수 있으리오?’라 하고는 이로부터 아내를 ‘우리 아씨’ ‘우리 아씨’하며 불렀다...(중략)... 몇 년 뒤 아내는 병이 들었다. 노파는 아내를 위해 기도했으나 병은 위독해졌고, 아내는 노파에게 喪事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26) 정우봉(2013)은 심노송이 유배생활 동안 불교에의 귀의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추구한 것이라 설명한다.

상처의 아픔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죽은 자만을 위한 슬픔조차도 심노승 자신의 슬픔과 맞닿아 있다. 아내의 죽음을 자신으로 규정하는 것은 곧 내재화된 슬픔을 극대화한 방식이다. 심노승의 이른바 ‘反求諸己’[잘못을 자기에게 찾는다]는 결국 죽은 자를 위한 ‘최고의’ 慰撫이자, 그런 그를 보내며 남겨진 자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후의’ 一喝이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자는 죽음의 원인을 자신으로 규정함으로써 슬픔을 극한으로 내몰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슬픔이 해소되거나 소멸되는 감정을 갖게 된다. 결국 심노승의 도망문은 망자 곧 죽은 아내의 입장에 의거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고 종내는 그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

IV. 亡室의 의미와 도망문의 창작

1. 정신적 동반자의 죽음

심노승이 아내를 위해 기록하고 수많은 도망문을 남기고 있는 것은 물론 희노애락을 함께하던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기도 하였겠지만 단지 부부간의 정에 의한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내는 어떠한 자질을 지닌 여인이었기에 심노승은 그녀를 잃고 이토록 슬퍼하는가? 아래의 기록을 살펴보자.

그대가 내게 시집왔을 때 泰簪[沈魯巖]은 12살이었다. 숙성하여 아이 같지 않았고 형수를 섬겨 존경할 줄 알았다. 그대 또한 친형제처럼 여기니, 먹고 머리 빗고 세수하는 일들을 매양 그대를 많이 따라했다. 자라서 가정을 이루어서도 조금도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다. 일찍이 내게 말하길, “서방님 같은 이는 한 가정으로도 말할 수 없고 온 세상과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아들을 얻으면 반드시 멀리서 스승과 벗을 구할 필요가 없겠군요. 형제 사이에 이렇게 좋은 벗이 있으니가요 내가 그 식견을 보니 당신보다 훨씬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잘못을 하면 번번이 말하길, “서방님은 이렇게 않은데요.”라고 하면 나 역시 부끄러워서 사죄하였다. 태침은 일찍이 말하길, ‘내가

형수에게 지우지감이 있다' 하였다.²⁷⁾

심노승은 아내가 자신에게 시집을 왔을 때 동생 沈魯巖의 나이가 12살이었는데, 동생이 형수를 존경하여 그를 따랐고 둘 사이가 매양 돈독하였던 일화를 서술한다. 주목할 부분은 동생 심노암이 심노승의 아내에게 '知遇之感이 있다'고 솔직히 말하며,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봐 주는 형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장면이다. 심노승에게 심노암은 평생의 벗이자 유일한 同學으로 의지한 아우이다.²⁸⁾ 그런 아우가 형수 곧 죽은 아내를 두고 지우지감이 있다고 일컫는 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우지감이란 그 상대를 알아볼 만한 修養과 才德이 겸비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동생에 의해 형상화된 아내는 그런 자질을 지닌 자였다. 심노암에 의해 존재화된 아내는 심노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일찍이 심노승은 모친의 약값 마련을 위해 친분을 활용해 청탁하는 것을 아내와 상의하였는데, 이때 아내의 직언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깨닫고 그만둔다. 이 일을 두고 심노승은 "아내는 내게 임금을 보필하는 어진 선비이자 힘센 정승과 같은 존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²⁹⁾라고 하며, 그가 인식하던 아내의 의미를 제시한다. 심노승에게 직접적으로 언급된 아내는 '어진 선비'와 '정승'과 같은 존재로서 헤안과 이치에 밝은 일종의 정신적 동반자

27) 沈魯崇, 「言行記」(『孝田散稿』 6책), “君歸余, 泰詹時年十二歲. 夙就無童習, 知事嫂之敬. 君亦視之如天顯, 飲食梳頰, 每多從君. 及長有家室, 無少間. 嘗謂余曰, 如叔者, 不可以一家言, 一世亦不易. 得子不必遠求師友. 墳篋之間, 有此良朋. 吾見其識量, 多過於子也. 吾有過失, 輒曰, 叔不如此. 吾亦愧謝. 泰詹嘗謂, 吾於丘嫂, 有知遇之感.”

28) 유준열(2015)은, 심노승이 역사적 인물들과 부친의 정치적 부침을 지켜보며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관계에 몸을 깊이 담는 것을 삼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 가치를 두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심노승의 형제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 형제간은 동반자로서의 삶의 지향을 공유하고 나아가 한 몸이나 마찬가지로 관계이기 때문에 『단향연축』과 같은 결과물을 탄생시켰다고 본다.

29) 이 기록은 「自著實記」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아내의 행실에 대해 기술한 「言行記」에도 중첩되어 나타난다. 심노승은 평소 大小事を 일일이 아내와 상의하고자 하였으며 또 그녀의 조언에 감복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다.

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심노숭은 아내에게 “연·조나라 선비들은 혹 그 벗이 되면 말 한마디에 벗을 위해 죽기도 했소. 반드시 죽지 않는다 해도 바야흐로 전율이 일 듯 마음이 맞고, 깊이 뜻이 통하면 절절하게 죽음을 도모하지 않은 적이 없어서 문득 스스로 살아 있음을 알지 못했다오. 벗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부부는 어떻겠소?”³⁰⁾라고 하기에 이른다. 심노숭은 자기를 알아주는 이에게 목숨까지 바친다고 했던 선비의 일화를 들며, 심노숭에게 아내는 그 고고한 선비들의 우정을 넘는 정신적 교감과 소통의 동반자였던 사실을 드러낸다.

아내는 분명 특별한 자질과 능력을 지닌 자³¹⁾로서 심노숭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知己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래의 기록은 심노숭이 아내의 현묘함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

당신은 평생 스스로 겸손함을 가지고 의중을 드러내 자랑하지 않았다. 내가 간혹 어떤 일이 있어 물어보면, 번번이 말하기를, “부녀자가 어찌 알겠습니까? 비록 부녀자가 알지라도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하였다.³²⁾

심노숭은 아내의 평소 겸손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아내에게 ‘心中

30) 沈魯崇, 「亡室大祥前一日告文」(『孝田散稿』 6책), “燕趙之士或有爲其友, 一言而死友未必死而方其犁然心契, 泃然情適, 未嘗切切然謀死而已, 忽然不自知其生. 友猶如此, 況其夫婦?”

31) 심노숭은 「言行記」에서 역순행적 방식으로 아내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중간 중간 대화내용 등을 삽입하는 방식을 취한다. 「언행기」의 기록을 순서대로 대강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소 가족, 주변인 등과의 관계에서 귀천을 가리지 않고 公明正大했던 아내 2. 어린 시절부터 기질이 남달랐던 아내 3. 결혼 생활 중 가난과 아내의 병치레 4. 병상에서도 타인을 먼저 배려했던 (장모와의) 일화 5. 청빈한 아내 6. 계획성과 혜안이 있는 아내 7. (갓 시집왔을 때로부터) 동생 심노암이 평하는 아내의 지우지감적 면모 8. 집안 남녀 중들이 묘사하는 현묘한 아내 9. 문예에 일가견 있는 아내

32) 沈魯崇, 「偕隱屏跋」(『孝田散稿』 6책), “君平生自持謙遜無矜容, 余或遇事有叩, 輒曰, ‘婦人何知? 雖知, 婦人又何可言也?’”

의 事'를 상의하고자 했던 대화를 기술한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의중을 파악하여도 결코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한편으론 알 수 없다 한다. 아내의 말 속에서는 이미 어떤 선택의 주체이자 결정자가 남편 곧 심노승이 될 것임을 내포한다. 이런 아내의 태도는 남편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다소 수동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명분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한다. 성리학적 이념에서 남녀 간 차이는 교조적인 통념 그 이상이었고 심노승의 아내 역시 그 당대의 일원이었다. 따라서 남편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할 것임을 내비치는 아내의 태도는, 결정의 주체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 속에서 남편을 설득시킬 동인을 예비하는 것이다. 비교적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아내의 태도는 오히려 그녀의 적극적 의견 피력을 위한 우회적 수법이 되고, 대화의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그리하여 심노승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일에 대해 의견을 묻고 상의하려는 중요한 상대로 아내를 꼽는다.³³⁾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대부는 같은 당색끼리 결혼했던 경우가 많은 바, 정신적 혹은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고 이해하는 지우가 되기도 한다.³⁴⁾ 특히 18세기에는 붕당정치의 폐해로 소외된 문인이 많았던 바, 수평적 관계로의 지향을 나타내는 友道論이 대두된다. 군신·부부·부자·장유 등의 개념에서

33) 沈魯崇, 『秋夕祭亡室墓門』(『孝田散稿』 6책)의 일부를 잘막히 소개한다. “吾未嘗有朋游之歡, 而不出乎閨閤之內, 吾未嘗聞友德之言, 而近取諸衽席之際.”

34) 『정조실록』[21년(1797) 2월 11일]에 따르면, 金鍾秀(1728~1799)는 정조에게 올리는 상소에서 “凶徒에 痛忿을 감출 수 없으니” 그 당사자로 ‘李明淵’을 언급하고 배후에 ‘李義術’과 ‘沈樂洙’를 거론한다. 김종수는 심노승의 부친 심낙수와 정적 관계에 있던 인물이며, 古稀에 벼슬을 은퇴하여 돌아가는 길에서까지 상소를 올려 젊은 관직자인 이명연을 경계하고 적대시한다. 이명연(1758~1803)은 임금에게 충언과 직언을 아끼지 않는 자로서, 1797년 사헌부집의로 있을 때[정조21년 1월 17일] 장문의 상소를 올려 時弊와 왕의 잘못을 숨김없이 極諫한다. 이 때문에 김종수를 비롯한 사헌부·사간원 양사에서 시국을 비방한 죄로 이명연을 탄핵하지만, 정조는 홀로 그의 충성됨을 알아 끝까지 옹호하여 주었다. 앞서 김종수가 이명연의 배후로 언급한 ‘이의술’(1747~1800)은 심노승의 장인이고, 이명연과 가까운 사촌지간이 된다.[『全州李氏廣平大君派世譜』 卷三, 全州李氏廣平大君派宗會, 1977.]

두루 쓰일 수 있는 이 우도론은 기존의 수직적 관계로의 위계질서 사회에서 다소 주춤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소외적·선진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그것은 인재를 알아주지 않는 부조리한 세태와 관련 깊다.³⁵⁾ 실제 심노승은 父親 沈樂洙의 영향으로 정치적 관계에서 고립되었으며 교유관계에 있어서도 주변부의 일단에서 배제되었다. 심낙수는 老論系 時派의 핵심적인 인물로 당대 주류를 이끌었던 僻派 金鍾秀, 沈煥之 등과 政敵 관계였다. 정조 사후 김종수의 당파가 장악한 벽파정권이 성립되자, 장자였던 심노승은 사망한 부친 심낙수의 죄가 연좌되어 유배와 좌천 등으로 불우한 삶을 영위한다. 심노승이 아내를 지기로 설정하는 이유도 이러한 배경과 관련이 깊은데, 이것은 일부의 문인들이 자신의 아내를 의례적으로 지우로 설정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된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고립되었던 심노승은 자신과 뜻을 함께 할 동반자를 늘 希求하지만, 그의 교유관계는 필연적으로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³⁶⁾ 그리하여 그가 소망하는 우도 곧 지기지우의 관계가 종내는 아내와 동생 곧 가족 내 구성원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일찍이 연암이 친구의 죽음을 아내의 죽음보다 더 슬퍼하였던 것과 사뭇 다르다. 앞서 언급했던 동생 심노암은 형제 관계였지만 심노승이 지속적으로 文·史·哲 등의 문학 일체를 교유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심노승은 동생이 자신보다 먼저 죽자 일시적으로 絶筆을 선언한다. 아내에 대한 망실문을 종래의 유래 없이 ‘多作’으로 남긴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³⁷⁾ 아내는 정치적 고립과 단절로 학문과 문학

35) 18세기 우도론의 문학·사회적 의미는 박수밀(2002) 참조.

36) 유정열(2015: p.252)은 『남천일록』의 자료를 일부 소개하면서, 후자가 任彦道(임이주)에게 심노승과 어울리면 벼슬하기 어려울 것이라 했는데 그 이유를 심노승이 심낙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 심노승, 『남천일록』 상, 국사편찬위원회, 2011, pp.483-484 참조.

37) 아내 전주이씨는 1792년 동생 심노암은 1811년에 사망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다작으로 연결되고 유일무이했던 동생이 죽자 절필로 연계되는 것은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형제들의 정황, 그런 형제의 소신이나 뜻을 굽어 살필 수 있는 자였기 때문이다.³⁸⁾ 그리하여 심노승에게 아내는 부부의 정 이상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정신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로 형상화된다.³⁹⁾

나는 그대에게 부부이면서 벗이었고, 벗이면서 지기였는데, 이제 그대가 죽음에 나는 마침내 둘 다를 잃는 것이라 애통해하며 항아리를 두드리고 곡하며 침실 문을 들어서고 슬퍼하며 거문고의 줄을 끊었소 나는 옆 사람들에게 우할 겨를이 없고, 또 스스로 돌아보아도 마음은 없어지고 모습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내가 비록 슬퍼하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 있겠소? 그대는 또 무슨 말로 내 슬픔을 그치게 하겠소?⁴⁰⁾

따라서 심노승은 아내에 대해 ‘부부이자 벗이었고 지기’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 伯牙絕絃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뜻을 알아주는 것은 오직 아내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유사한 友道의 맥락을 “(그대는) 내가 지나침을 일삼지 않게 했고, 사귀어 서로 간절히 선을 권면했으니 진실로 우도와 같았다.”⁴¹⁾의 구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심노승이 아내를 지기나 우도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내가 정치적 여파로 진사시에 합격하고도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던 심노승의 고충⁴²⁾ 등을 이해한 측면에서도 해석 가능하다. 정치적으로

38) 주 27)의 심노암이 형수에 대해 언급한 지우지감적 면모 참조. 또 주 29)에서 아내는 쌀을 청탁하고자 한 심노승을 두고 “나이 어린 선비가 재물과 이익 때문에 천 번의 재상 자리를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

39) 심노승과 아내의 긴밀했던 관계는 여타의 기록에 나타나 있으며,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沈魯崇, 「亡室大祥前一日告文」(『孝田散稿』 6책), “子於病中, 對人諄諄, 向余懇懇, 自恨而曰, 吾將誤人. 抑余而曰, 子何累我? 其言不同, 而要在於恐吾深悲.”

40) 沈魯崇, 「亡室大祥前一日告文」(『孝田散稿』 6책), “吾於子夫婦而友, 友而知己, 今子之死, 吾遂併失, 痛而叩盆, 哭而寢門, 哀而斷絃. 吾且左右應而不暇, 又自顧而心亡形存, 人謂我母悲何也? 我雖欲不悲得乎? 子又何辭止吾之悲乎?”

41) 沈魯崇, 「亡室大祥前一日告文」(『孝田散稿』 6책), “吾無事乎過, 與交相切劘, 眞若友道.”

42) 심노승은 29세 때 진사시에 합격하고도 8년이 지나도록 관직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의 정치적 부침과 연관된다. 심노암도 생원시에 합격하나 관직에 나아가

고단하고 불우했던 심노승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가장 가까이에서 격려하고 보필해 준 아내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정신적 동반자를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부부의 정을 넘어, 더 이상 知遇之感을 가질 수 없는 知友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이 아닐까⁴³⁾ 그러므로 그런 슬픔조차도 슬퍼하지 말라는 주변의 만류는 심노승에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2. 남겨진 자의 슬픔: 그 극복을 위한 전력의 글쓰기

아내를 잃고 심노승이 얼마나 애통해하였는가는 『枕上集』의 序文에서 찾을 수 있다.

베개 밑에서 책이 쓰였기에 이름을 침상집이라 이른다. 내가 우환과 슬픔으로부터 시문을 지은 바가 침상에서 얻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한 것이다. 일찍이 나는 잠을 잘 자서 누우면 쉽게 잠들었다. 사람들은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자지 못한다고 이르나 나는 잠만이 마음의 번뇌를 이긴다고 생각했다. …(중략)… 이른바 잠이 마음의 번뇌를 이긴다는 것은 내가 일찍이 큰 번뇌를 겪지 않아서인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다. …(중략)…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종일토록 잠잘 방법이 없었다. …(중략)… 홀연 모든 근심이 잊혀지고 오직 한 가지 생각은 잠드는 것이다. 진실로 잠들어 꿈꿀 수만 있다면 저 죽은 자의 어두움은 내 돌아보고 싶지 않다. 차라리 북쪽 창가에 나가 복희씨를 뵈고 사슴기죽(婚禮의 納幣로 쓰임)의 예는 어찌 창시하여 이 같은 화를 만들었는지 묻고 싶으나 이것도 할 수가 없어 단지 소리를 치며 허공에 글씨를 쓰고 있으니 마음속에 병이 있는 것 같다.⁴⁴⁾

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 43) 심노승이 도망문에서 거듭 봉우의 도를 밝히는 것도 이와 관련 깊다. 沈魯崇, 「偕隱屏跋」(『孝田散稿』 6책), “余於君夫婦而, 有友朋之道矣.”
- 44) 沈魯崇, 「枕上集序」(『孝田散稿』 6책), “集以枕上名, 謂集於枕上. 自余憂憾, 所爲詩文, 多得於枕上, 仍而名者也. 曾余善睡, 臥輒昏然. 人謂心煩無睡, 余獨以爲惟睡勝心煩. …(중략)… 所謂睡勝心煩者, 以余曾未有大煩, 故謂然也. …(중략)… 經旬閱月, 終無術可睡. …(중략)… 忽萬愁之都忘, 惟一念之在睡. 苟使得睡而夢, 彼死者之昧然, 余不顧其復見, 無寧就北窓而謁羲皇, 先問麗皮之禮何爲而創此禍萌. 此猶不得, 徒咄咄而書空, 若有病於中心.”

심노승은 도망문의 기록의 일체인 『침상집』을 엮은 이유를 침상에서 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가 잠들지 못했기에 그러하다. 침상에서 늘 함께 했던 아내가 부재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심노승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평소 잠만이 번뇌를 이긴다고 생각하며 쉽게 잠에 이를 수 있었던 심노승은 아내를 잃은 후부터는 극도의 불면에 시달리고 있음을 토로한다. 그는 잠을 청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잠에 대한 강박은 오히려 더 잠 못 들게 만든다. 그리하여 심노승은 모든 근심은 잊은 채 오로지 잠들 수만 있다면, “저 죽은 자의 어두움은 내 돌아보고 싶지 않다[彼死者之昧然, 余不顧其復見].”고 서술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죽은 자란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며, 심노승은 극도의 수면장애의 고통을 두고 심지어 혼인제도를 만든 복희씨를 탓하기까지 한다. 심노승에 의하면, 불면의 고통은 아내를 잃은 탓이고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한 복희씨의 탓이다. 이 남겨진 자의 잠 못 드는 고통은 결국 죽은 자인 아내의 고통 따위는 돌아볼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황폐해진 것이다. 이처럼 잠에 대한 강박에 시달리던 심노승은 다음의 생각에 도달한다.

홀연 스스로 깨달았다. ‘시문을 만들어 지으면 그 마음과 손이 움직이고 눈으로 보이고 입이 시문을 읽을 것이다. 일찍이 (시문 짓기가) 잠과 서로 도모되는 아니지만, 시문을 점점 많이 지으면 잠이 또 점차 더해져, 끝내는 잠이 시문을 이길 것이니 시문을 짓는 때나 생각에도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이 이에 이르니 절로 웃음이 나고 또 다시 기뻐져 밤낮으로 침상에서 시문 짓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다시 근심이 더하는 것 같았고 더욱 잠들지 못하였으나, 그 후에는 잠이 반쯤 오게 되었고 또 그 후에는 잠이 많아져 근심이 적어지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거의 근심이 잊혀 잠들 수 있다.⁴⁵⁾

잠들지 못하는 심노승은 결국 잠들기 위해 글을 쓰기로 하고 그로인해 잠이

45) 沈魯崇, 「枕上集序」(『孝田散稿』 6책), “忽然自悟, 作爲詩文, 方其心與手運, 眼看而口讀. 詩文末嘗與睡相謀, 而爲詩文漸多, 睡亦漸加, 終自之於睡勝詩文, 無可以爲詩文之時. 思之至此, 既以自笑, 又復自喜, 遂日夜爲詩文於枕上. 始則若又添愁尤不能睡, 其後睡與睡半, 又其後睡多而愁少, 至今幾忘愁而睡矣.”

든다. 심노승에게 있어 슬픔의 근원은 아내의 부재이고 그 때문에 잠 못 들지만, 심노승은 ‘글을 쓰면서’ 아내를 생각하게 되고 그녀의 부재를 채우는 동안 다시 잠들 수 있다. 따라서 심노승에게 글쓰기란 아내를 추억하고 상기하는 매개이며, 스스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위안하는 유일한 도구이자 해법이 된다.

앞서 본고는 심노승의 도망문이 죽은 자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한 차원과 자기 위안의 차원에서 설명되며, 그 죽은 자의 슬픔도 심노승 자신의 슬픔에 기대어 표현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침상집』 序의 내용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심노승의 도망문이 애초에 자기의 고통을 배출하고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서술된, 일종의 카타르시스적 글쓰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아내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에서도 복합적으로 자신을 위무하며 자기 상처의 치료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는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부재하였을 때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녀를 떠올리고 기록하여 복원시키는 글로써 가능하게 되고 그것은 아내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자 자신만의 창구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심노승에게 망실문은 지우지감을 잃은 슬픔에 대한 解渴의 창구가 된다.

이런 까닭에 시문은 장차 책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혹자가 이르기를, “그대의 운명은 시문과 함께 곤궁하여졌거늘 어찌하여 더욱 힘쓰기만 하고 그만두지 않아 그 곤궁함을 더하는가?” 하였다. 나는 “운명이 곤궁한 것이지(시문에) 어찌 그 죄가 있으리오. 이로써 곤궁함을 잊었으니 공이 크다고 이를 만하다.”라 하였다.⁴⁶⁾

시문 때문에 운명이 곤궁해졌는데 무슨 시문을 또 극력해서 쓰냐는 혹자의 의견에 대해, 심노승은 “곤궁한 것은 내 운명이 그러한 것이지 시문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나를 구제하고 슬픔을 잊게 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정치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심노승에게 곤궁함은 권세나 부귀영화로부터

46) 沈魯崇, 『枕上集序』(『孝田散稿』 6책), “於是詩文將成卷, 出而示人, 或謂, ‘子之命與詩文窮, 何必強爲之不益其窮也.’ 余曰, ‘惟命之窮, 豈其罪哉? 以此忘窮, 可謂功矣.’”

의 소외가 아니다. 그런 남편을 이해해 준 아내의 부재가 진정한 곤궁함이 된다. 그러므로 아내에 대한 글쓰기는 그러한 곤궁을 잊게 하는 최고이자 유일한 방법이다.

V. 결 론

본고는 심노승의 도망문을 통해, 그토록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던 이유의 뿌리를 찾고 그 문학적 성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심노승의 망실문은 우선 뚜렷한 장르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오로지 망자의 슬픔을 위로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구현 양식은 글쓰기의 주체자인 심노승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차원에서 아내와 공유할 지점이 강했던 기억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한편으로는 아내를 위한 위로로써 아내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일화들을 기술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 서사적 흐름이나 인과적 방식에서 서술되지 않고 그때그때 발현되는 감정의 발로에 기반하는데, 그것은 아내를 위한 것이자 궁극적으로 심노승 자신의 치유를 위한 복합적 감정의 글쓰기이다.

심노승에게 형상화된 아내는 자신을 알아봐 주는 진정한 지기지우로서의 아내이다. 아내가 심노승에게 보다 특별하게 인지되었던 것은 현묘한 자질을 지닌 아녀자이기도 하였지만, 불우한 정치적 세태나 정황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 동반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아내를 잃은 슬픔은 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오로지 글쓰기를 통해서 잊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내의 부재는 아내를 기록하면서 수없이 현상화되고 현신화되기 때문이다. 형식적 제약은 필연적으로 내용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심노승은 제문의 격식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그 ‘哀’를 표현하기에 이른다. 그의 도망문이 어떤 수사적 기법이나 표현보다 절절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參考 文獻>

1. 기본자료

- 沈魯崇, 『孝田散稿』, 학자원, 2014.
_____, 『南遷日錄』, 국사편찬위원회, 2011.
_____, 김영진 역,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_____, 안대회·김보성 외 역, 『자저실기』, 휴머니스트, 2014.
차미희·강성숙 외 역, 『19세기·20세기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9, 보고서, 2013.
『全州李氏廣平大君派世譜』, 全州李氏廣平大君派宗會, 1977.
『정조실록』, 고전번역원 DB.

2. 단행본

- 김영진, 「孝田 沈魯崇論」, 『조선후기 한시작가론』 2, 이회, 1998.
노대환, 『소신에 목숨을 건 조선의 아웃사이드』, 역사의 아침, 2007.
이수광,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연애사건: 시대와 신분을 뛰어넘은 조선의 최대의 스캔들』, 다산초당, 2007.
정창권, 『조선의 부부에게 사랑법을 묻다』, 푸른역사, 2015.

3. 논문

- 김미영, 「죽은 아내를 위한 선비의 제문 연구」, 『실천민속학』 8, 실천민속학회, 2006.
김수진, 「『恩坡散稿』의 성립과 沈魯崇」, 『한국문화』 7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김영진, 『孝田 沈魯崇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6.
_____, 「유배인 심노승의 孤獨과 文筆로써의 消愁 -유배일기 『南遷日錄』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37, 근역한문학회, 2013.
박무영, 「18세기 망실문의 공적 기능과 글쓰기」, 『한국한문학회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박수밀, 「18세기 우도론의 문학·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 안대회, 「18, 9세기의 음식취향과 미각에 관한 기록 -沈魯崇의 『孝田散稿』와 『南遷日錄』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69,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5.
- 안득용, 「자서전 코드로 읽어 본 自撰年譜 -沈魯崇의 『自著紀年』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문학회, 2015.
- 유정열, 「형제 관계 속에서 본 沈魯崇의 문학 활동 -청년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59, 민족문화사학회, 2015.
- 이은영, 「못 다 한 사랑과 그리움의 노래 -悼亡詩의 전통과 미」,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 정우봉, 「조선후기 游記의 글쓰기 및 향유방식의 변화」, 『한국한문학연구』 49, 한국한문학회, 2012.
- _____, 「沈魯崇의 『南遷日錄』에 나타난 내면고백과 소통의 글쓰기」 52, 『한국한문학연구』 52, 한국한문학회, 2013.
- _____, 「沈魯崇의 자전문학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과 자아 형성」, 『민족문화연구』 6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 한새해, 「『효전산고』에 나타난 여성 형상화 방식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3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 황수연, 「조선후기 제문 연구 -여성 대상 제문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26, 대동한문학회, 2006.

Abstract

*The consideration about sorrowful literature of HyoJeon Sim, No-Sung for dead wife / Han Sae-hae**

There is a little difficult in analyzing the wife of Sim No-Sung, viewed in the literature for Sim No-Sung's dead wife, to the point of 'comfort to dead man' or 'comfort to self' the general literatures for dead man work out with. Therefore this report review the Sim No-Sung's literatures for his dead wife with the question why Sim No-Sung could have been sorry about his wife's death by analyzing the features of the describing patterns in the Sim No-Sung's literatures for dead wife.

His sorrowful literature for dead wife had been met with himself, his late wife even as much reflects the position of the level mainly their sorrow. These complex way to say finally Sim No-Sung's to writing and to treat extreme suffering of the connections that were built in to him.

Sim No-Sung's dead wife is understood in terms of friendship. His wife was so quite wise and friendly that she could have understood her husband's political tiredness. So, Sim No-Sung's sorrowful mind of losing his wife could not have been replaced with anything. Mental pain is leading to physical pain. As a result, he had selected the writing as only way of reconstructing his wife for overcoming those pains.

【Key words】 sorrowful literature for dead wife, a message of condolence, friendship, sorrow, self-conquest, Spiritual companion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6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

* Sogang University / ddch38@hanmail.net